

동양선교교회

성도여러분에게 드리는 13번째 편지

“라철삼집사 홍목사 협박했다” 개인 편지 후보에 넣어 배포 “이것이 무슨 협박편지란 말이나” 원로장로들도 크게 반발

지난 10월 24일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예배 순서가 적혀있는 후보에 “아래 편지는 라철삼 집사가 홍민기 목사님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라는 제목의 1페이지 짜리 인쇄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왜 이 인쇄물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예배와 관계도 없었고 광고를 해야할 성격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편지가 후보에 끼어 전체 교인들에게 배포된것은 우리교회는 물론이고 어느 교회에서도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편지 내용은 담임목사 청빙 문제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홍목사님이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해 주셔야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편지는 홍목사를 위한 충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제임스(한국명:박석재) 장로가 광고시간에 강대상에 올라가 지난 21일 LA 상급 법원에서 열렸던 재판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는 사이, 방송실에서 문제의 그 편지 내용을 영상으로 비춰주면서 “라철삼집사가 홍목사님을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 때야 우리는 왜 그 편지를 장로들이 후보에 넣어 전 교인들에게 배포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이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편지를 협박성 편지라고 했는지 말입니다. 이제 그 편지의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편지가 과연 협박성 편지인가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양선교교회 라철삼집사입니다.

목사님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동양선교교회에 안 간다고 정식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교회 당회원들은 “홍목사는 온다”면서 예배 때마다 홍목사님 오시도록 기도하자고 하는가 하면 “홍민기목사의 양식”이라는 영상을 통해 목사님의 오래전 설교의 한 대목을 여과 없이 대예배시간에 내보내는 등 등.... 정말 해괴한 일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목사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울의 국민일보와 LA 현지 신문들의 보도를 통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인들은 그때마다 어이가 없어 비웃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을 알고 계신다면 이제 목사님이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불똥이 목사님에게 튕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목사님이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품기도 합니다. 신문에는 안 온다고 해 놓고 슬쩍 오려는 술책이라는 실로 치졸한 억측 말입니다. 지금 상황은 당회원들과의 대화로 끝날 때가 지났다고 봅니다. 적어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친필 편지나 녹화 테이프 등을 보내시는 것이 목사님에게 누가 끼치지 않는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저에게 답신을 보내셔도 됩니다. 더구나 목사님문제는 목사님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보내는 편지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 에서 라철삼 집사 드림. 10-13-10

이 편지를 보고 한 원로장로님은 장로들에게 “설명도 없이 이렇게 주보에 넣을 수가 있느냐? 내가 보기에는 이 편지는 협박성 편지가 아니다. 교인들이 라철삼 집사보다는 장로들을 비난 할 것 같다”고 충고했습니다. 장로님 편이 한 권사님은 이 편지를 읽고는 “라철삼 집사가 장로님 편이냐?”며 헛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그 진의를 알 수가 없을 정도이니 교인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안 온다”던 홍목사 장로들과 꾸준한 관계유지
“홍목사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 오려고 했다.”
“안 온다”는 발표는 장로들과 함께 꾸민 연극**

문제는 이 편지를 어떻게 입수 했느냐 는데 있습니다. 이 편지는 라철삼집사가 홍민기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e-mail의 전문입니다. 홍목사가 박제임스(박석재)를 비롯한 이영송, 엄문섭, 최수남, 이세훈, 이영세, 박환, 채홍인 등 장로들에게 또는 그들 중의 하나에게 그 내용을 전달한 것입니다.

결국 홍목사는 이들 장로들과 관계를 맺어 온 것입니다. 만일 그가 국민일보 기자에게 밝혔듯이 동양선교교회에 가지 않기로 했다면 동양선교교회 장로들과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e-mail의 내용을 전달해 주는 등의 관계는 진정 불필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직접 e-mail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그 정도로 장로들과 지금까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것입니다.

홍목사는 지난 8월 18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를 청빙한 공동총회가 불법이었음을 인정하는 한편, 이날 공동총회를 직접 비난하고 나섰었습니다.

그 때 보도됐던 국민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지난 달 25일 동양선교교회 임시 공동회의에서는 홍 목사를 담임목사로 공식 결의했다. 하지만 동양선교교회는 공동회의 과정과 관련한 불법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에 대해 홍 목사는 “반대하는 사람 일어서라고 하는 총회가 어디 있느냐”며 “그런 식으로 하면 나 또한 총회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회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보도 내용대로라면 홍목사는 앞은 물론이고 뒤로 돌아서서도 동양선교교회를 쳐다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홍목사는 그동안 아닌 척 하면서 꾸준히 장로들과 접촉을 해 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홍민기 목사는 우리교회에 오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홍목사

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 오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년 전 개척, 교인 수 100여명, 젊은이들이 대부분 헌금 많지 않아 홍목사 생활비도 못주는 미자립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홍목사를 알고 있는 서울에 있는 그를 아는 분들을 비롯한 교계 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

홍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함께하는 교회는 창립한지 불과 3년 밖에 되지 않았으며 예배참석 인원이 100여명 정도. 그 중의 대부분이 학생 등 젊은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이 대부분이어서 헌금이 충분하지 못해 아직껏 자립을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홍목사의 생활비마저 보태주지 못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홍목사는 교회일은 거의 관여하지 않고 전국을 돌면서 강사비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임목사가 결정되면 우리 교회로 오려고 하고 있으나 그 같은 교회 실정 때문에 후임으로 오려는 목사가 없어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그를 아끼는 목회자와 친구 그리고 가족, 그 중에서 사모님이 극구 반대하고 있지만 홍목사의 결심이 아직 변한 것 같지는 안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설명입니다. 그의 별명처럼 탱크처럼 밀고 들어 올 기세인 모양입니다.

“우리는 홍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한 사실이 없다” 우리교회 불법공동총회는 전국교계가 다 아는 사실

그러나 우리는 홍목사에게 이 한마디를 해 두고 싶습니다.

“몇 명 밖에 안 되는 당회원들은 찬성했는지 몰라도 우리교회 교인들은 당신을 담임목사로 청빙한 사실이 없습니다.”

소위 홍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려는 임시공동총회에서 박제임스(박석재) 장로가 “반대하는 사람은 일어서라”고 해서 교인들이 잠시 혼선을 빚었지만 곧 바로 그의 저의를 알아차리고 3분의 2 이상의 교인들이 일어나 반대의사를 표했습니다.(이 상황은 DVD로 만들어 이미 교인들과 관련 인사들에게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를 맡은 박 장로는 그 같은 사실을 눈으로 직접 보고도 통과됐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인들이 분명하게 홍목사의 청빙을 반대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며 홍목사의 국민일보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이제는 전국의 교계에서도 인정(?)하는 사항이 됐으며 더구나 홍목사 자신도 이날의 공동총회는 불법으로 진행됐으며 따라서 동양선교교회 교인들이 홍목사를 청빙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 “나도 안받아들일 것”이라던 홍민기목사, 국민일보에 대서특필 해 놓고 올 준비 중

우리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홍목사가 탕크처럼 우리교회로 밀고 들어오려면 “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왔다”고 떳떳하게 주장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목상 중에..... 하나님이.....기도하는 중에..... 주신 사명..... 등등”의 말씀은 하지 말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석재, 이영송, 엄문섭, 최수남, 이세훈, 이영세, 박환, 채홍인 장로 등은 하나님도 이미 버리신 것 같다는 것이 LA 한인 교계인사들의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목회자들은 “그들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으며 사악해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불법을 허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악한 자를 인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들 장로들이 저질러 온 그동안의 사악한 일, 불법, 그리고 그 불법에 불법을 더한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허용하시겠습니까?

장로들 TRO 재판에 변호사 3명이나 끌고 법원 출두 호그 판사 “제시한 증거 TRO사안 아니다” 기각 판결

지난 10월 21일 오전 10시 15분, LA 상급법원 34호 법정에는 우리교회 교인들로 북적였습니다. 담당 판사인 에이미 호그 판사는 지난해 강준민목사와의 재판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준 판사로 우리 모두에게 친근한 분이었습니다. 특히 장로님들은 당회를 회복시켜준 분이어서 남다른 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날 재판에서 장로님들은 칼 손과 데이비드 김 그리고 사무엘 유 등 변호사를 3명이나 대동하고 박제임스(한국명 : 박석재), 엄문섭, 이세훈, 박환 노수정 장로, 엄창웅, 최형수 집사 그리고 이장순 권사 등 1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장로들이 소송을 제기, 피고가 된 18명 가운데 전날 무릎 수술을 받았던 김대복 집사님과 요양 중인 김요한 장로님, 현재 알래스카에 가 있는 전장근 집사를 제외한 15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또 장로들이 최근에 포함시킨 김해룡, 김효신 집사를 대신하는 카메론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당회가 제구실 못하는 것은 경영관리를 잘못된 탓이다” “우는 애기처럼 법원에서 치근덕거리지 말라” 망신당해

이날 재판은 장로들이 교인들을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 접근금지 명령”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리자 장로측 변호사인 데이비드 김 변호사가 왜 “긴급 접근금지 명령”이 필요한가에 대한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호그 판사는 어떠한 주장도 접근금지명령을 내려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이를 일축했습니다. 데이비드 변호사가 다시 이미 제출한 서류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호그 판사는 데이비드 변호사가 말한 서류의 사례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면서 그것들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데이비드 변호사는 피고들 때문에 법원이 부여한 당회의 권위와 역할을 하나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은근히 호그판사의 지원을 기대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린대로 바로 호그판사가 강준민 목사와의 재판에서 당회의 복귀와 복권 등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호그 판사는 이같은 데이비드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경영관리(Management)의 문제로 법원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고 못박았습니다. 말하자면 당회의 권한만을 주장하지 말고, 당신들 멋대로 하지 말고, 똑딱거리면서 싸우지 말고, 교인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민주적으로 교회를 잘 다스려 나가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듯 데이비드 변호사는 집사들이 길거리에서 장로를 밀어 지나가는 차에 치어 죽을 뻔 했다면서 살인 운운 하자 호그 판사는 지금 우리의 주제는 “교회 접근금지 명령이다”고 지적하고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은 경찰을 불러 해결해야지 우리의 주제가 아니라고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데이비드 변호사가 더 얘기를 하자 호그 판사는 “우는 얘기처럼 치근덕거리지 말라. 법원이 그런 곳이 아니다”면서 점잖게 답변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날 장로들은 크게 망신을 당했으며 물론 “긴급 접근금지 명령”은 기각됐습니다.

호그 판사는 마지막에 양측이 적절한 선에서 서로 타협할 것을 권고하면서 12월 17일까지 합의를 도출하라고 날짜까지 지정해 주었습니다.

박석재 장로, 교인들에게 “기각 아닌 연기다” 뻔뻔스런 거짓말 판사가 “필요하다면 경찰 부르고 가드 사라”고 했다고 망언

그런데 박석재(박 제임스)장로는 지난 10월 24일 주일 대예배 광고 시간에 강대상에 올라가 정말 얼토당토 않는 너무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박석재(박제임스)장로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재판에서 진 것이 아니고 호그판사가 판결을 연기한 것입니다. 호그 판사는 당회의 하는 일을 방해할 경우 경찰이나 시큐리티 가드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긴급” 하다고 해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 달라고 했는데 박장로의 말대로 호그 판사가 이 판결을 연기했다면 그것은 “긴급하지 않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기각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판결을 연기했다고 교인들을 그럴듯하게 속인 것입니다. 박장로는 이어 호그 판사가 “경찰이나 시큐리티 가드를 활용하는 권한을 우리 교회 당회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을 부르거나 시큐리티를 부르는 것은 판사의 판결에 의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여러분도 나도 누구도 필요하면 경찰을 부를 수 있고 가드를 돈 주고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 장로는 당회가 무슨 대단한 권한을 그것도 호그 판사한테서 직접 위임 받은 것처럼 교묘한 표현으로 순진한 교인들을 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속인다고해서 속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이 있는데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법원의 이날 재판에 관한 판결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LOS ANGELES

DATE: 10/21/10

DEPT. 34

HONORABLE AMY D. HOGUE

JUDGE J. JONES

DEPUTY CLERK

HONORABLE

JUDGE PRO TEM

ELECTRONIC RECORDING MONITOR

R. MANZO, C.A.

Deputy Sheriff

C. GRAVES, CSR #10592

Reporter

8:30 am

BC435913

Plaintiff DAVID S. KIM (X)
Counsel CARL JAMES SOHN (X)

THE SESSION OF THE ORIENTAL MISS
CHURCH ET AL
VS
JAMES SUN KWAN RHEE ET AL

Defendant D. STEVE CAMERON (X)
Counsel SEUNG HO LIM (X)/PRO PER
SA WOONG MA(X)/IN PRO PER
YOUNG MAN KIM (X)/PRO PER
JAMES RHEE (X)/PRO PER

r/t BC366406

NATURE OF PROCEEDINGS:

ORDER TO SHOW CAUSE RE PRELIMINARY INJUNCTION;

KWANG CHAN KIM (X)/PRO PER
CHUL SAM RAM (X)/PRO PER
YOUNG HA BAE (X)/PRO PER
STEVE SEUNG PYO LIM (X)/PRO PER
YOUNG SIK JUNG (X)/PRO PER
YOUNG SOK CHN (X)/PRO PER
KWIDONG CHA (X)/PRO PER
SUNG JA LEE (X)
KYUNG SOO HAN (X)/KWAN SUK AN (X)/PRO PER

The matter is called for hearing and argued.

Preliminary Injunction is denied for the reasons stated and fully reflected in the notes of the official court reporter and incorporated herein.

The Court gives an admonishment to all parties involved in this case.

Mediation cut-off date is advanced and set for December 17, 2010.

Defendant to give notice.

MINUTES ENTERED 10/21/10 COUNTY CLERK

10/22/10

판결문을 보신대로 교인들을 쫓아내기 위한 “긴급 접근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은 기각(denied)됐습니다. 장로들은 이 재판을 위해서 그날 만 변호사를 3명이나 동원했으며 그 사이 몇 달 동안 변호사들을 통해 준비시켜왔습니다. 그것이 다 돈이라는 사실은 교인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장로들, 지난 1년 사이 4번이나 소송제기, 모두 패소 그 사이 변호사비로 교회 헌금에서 수십만 달러 빼내

지난 1년 사이에 재판은 4번이나 열렸으며 그 때마다 박제임스(박석재)를 비롯한 이영송, 최수남, 엄문섭, 이세훈, 이영세, 박환, 채홍인 장로들이 졌습니다. 4번의 재판은 모두 교인들을 교회에 못나오게 하려는 소송이었습니다. 똑 같은 내용의 또 다른 소송이 장로들에 의해서 이미 법원에 접수 돼 내년 3월 21일로 재판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왜 이래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판사가 교인들을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에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아무래도 상황판단을 잘못하고 있거나, 세상물정을 모르거나 아니면 모자라는 사람들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다른데 있습니다. 이들 4번의 재판을 위해서 그 사이 무려 수십만 달러의 교회 헌금을 변호사비로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들 장로들은 헌금이 줄었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헌금을 내겠습니까? 쓸데없는 변호사비로 몇 십만 달러씩 써버리는 교회, 나오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출석이 매 주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의 치리기구라고 그들 스스로가 주장하는 당회는 속된말로 “목에 힘만 주고 있을 뿐”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미안한 표정도 짓지 않고 있습니다. 박석재와 엄문섭 장로는 임기가 끝났는데도 뻔뻔스럽게 당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동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교인 여러분들이 나설 때입니다.

우리의 교회인 동양선교교회가 지금 예배당이 텅 빈 정도로 교인들이 줄어들었습니다. 2중 3중으로 주차를 해왔던 본당의 주차장은 이제 3부 예배 때도 여기 저기 비어있습니다.

주일날 만날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두 다른 교회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떠난 사람들을 부르려는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없고 말씀도 없는 텅 빈 교회, “내 교회가 망하고 있는데 너는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망설이기만 할 것이냐? 뭔가는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어디선가 말씀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동양선교교회 성도여러분! 이제는 교인 여러분들이 나설 때입니다. 최소한 문제의 장로들을 불러 “제발 이러지는 말자”고 호소라도 해야 합니다. 준엄하게 잘못을 지적하면서 꾸짖기라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설 때입니다.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헌금을 하면 그 돈이 몽땅 시큐리티 카드 사용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되고, 그나마도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리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강목사 밑에서 수 백만달러에 이르는 우리들의 헌금을 빼돌린 하수인인 장주영 재정국장이 하는 설교를 매 주일마다 들어야 하는 딱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에 가지조차 싫다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없고 싸움만 있는 교회는 싫다는 교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감안, 우리가 사랑하는 동양선교교회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하는 비상대책 특별기도회를 갖고있습니다.

매주일 오후 1시 월드미션 신학교 대 예배실에서 정기적으로 모입니다.

와서 보시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순수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모임입니다.

이 특별기도회에는 우리교회에서도 시무하셨던 김성웅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열정적인, 은혜가 충만한 그리고 능력있고 감동을 주는 설교가 매주일 이곳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부흥회에 온것 같으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특별기도회를 바로 우리들의 모임인, 초대교회의 믿음을 그대로 실현하는 모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기도회에 참가하실 분들은 직접찾아 오시고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면 213-703-5700이나 213-820-8550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선교교회 비상대책 특별기도회 안내

일시 : 매주 주일 오후 1시

장소 : 월드미션 신학대학교 6층 대예배실.

(500 shatto Pl. #600. LA, CA. 90020)

동양선교교회 교인들을 위한 웹사이트가 마련돼 있습니다.

www.klifeusa.com 에 가시면 동양선교교회 란이 있고 그곳을 클릭하면 이 글을 포함해서 동양선교교회의 최근 소식 등 많은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직접 글을 쓰실 수 있고 댓글도 달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방법도 그 안에 기록돼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또 한인 사회의 뉴스와 문학인들을 위한 "문예 마당"란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나 수필, 단편 등을 통해 직접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www.klifeusa.com 입니다

동양선교교회 회복 대책위원회